

광주FC, 서울 상대 연습 잇고 사우디 간다

지난해 3번 맞대결 모두 승리 '좋은 기억'...19일 K리그1 9R 원정경기 골맛 본 가브리엘·박진혁 예열 완료...26일엔 알 힐랄과 ACLE 8강전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연습 행진을 이어간다.

광주는 1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서울전 좋은 흐름을 잇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해 서울과의 3번의 맞대결(1라운드 2-0, 16라운드 2-1, 33라운드 3-1)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1-0 승리까지 더하면 서울전 4연승이다.

광주는 좋은 기억을 살려 서울로 간다. 승리의 여운도 남아있다.

광주는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경주한수원FC와의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기록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가브리엘과 박인혁이 나란히 골을 터트리면서 예열을 끝냈다.

광주는 서울전에서 연습을 잇고 기본 좋게 사우디행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이번 서울전이 끝난 뒤 오는 26일 진행되는 알 힐랄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꿈을 현실로 이룬 광주는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과 선수단은 서울전 승리와 함께 기

분 좋게 제다로 향하겠다는 각오다.

앞선 코리아컵에서 광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승리를 챙겼고,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전력 옵션의 폭도 넓혔다.

노희동, 진시우, 권성운, 하승은 등이 선발로 출전해 어필 무대를 가졌고, 황재환, 홍용준, 안혁주도 교체로 출전에 몸을 풀었다.

이정효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다양한 전력을 구상할 수 있게 됐고, 경쟁 구도를 통한 내부 발전도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브리엘의 움직임이 반갑다.

앞선 강원전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가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던 가브리엘은 이날 선발로 나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해결사'의 복귀를 알렸다. 박인혁도 광주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

헤이스의 상승세 속에 '에이스' 아사니가 견재하고 여기에 가브리엘과 박인혁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무조건 공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는 뒷심 싸움을 위한 체력 안배도 했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광주 중원을 움직이고 있는 박태준과 함께 이강현을 경주한수원에 투입하지 않고 서울전을 대비했다.

광주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더 좋은 호흡을 보여



광주FC가 부상에서 돌아온 가브리엘을 앞세워 19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나선다. 가브리엘이 16일 경주한수원과의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주고 있는 박태준과 이강현을 내세워 부상으로 고민 중인 서울을 상대하게 됐다. 서울은 기성용, 정승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허리 싸움에 변수가 생겼다. 광주는 새롭게 구성될 상대의 중원 조합에 맞춰 '서울 칼리'의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광주가 지난 시즌 승리의 기억을 안고 서울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 다친 손...유로파리그 8강 2차전 못 뚫다

프랑크푸르트전 원정 결장

발을 다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사진)이 결국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8강 2차전에 뛰지 못하게 됐다.

토트넘은 17일 구단 홈페이지에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은 독일 원정에 동행하지 않으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8강전에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18일 오전 4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 파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2024-2025 UEL 8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11일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1-1로 비겨 4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날 2차전에서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의 부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3일 토트넘이 2-4로 패한 올버햄프턴 원더러스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발을 살짝 찢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전을 대비하고자 손흥민을 아끼려 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올버햄프턴전 이후 손흥민이 팀 훈련에 참여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독일 원정길에 함께 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이체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8강 2차전에) 결국 출장하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뛰지 못하는 선수"라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은 몇 주 동안 발 문제로 고생했지만, (경기를 뛰기 위해) 잘 견뎌냈다. 지난 며칠 동안 훈련했고, 어제도 훈련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가 회복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회복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집에 머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적



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경기에 맞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2차전을 뛰기에는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만 전했다. <연합뉴스>



16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탐방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멀리뛰기 동메달을 차지한 서예지(오른쪽)가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 제공>

광양하이텍고 서예지 아시아육상선수권 동메달

여자 멀리뛰기 5m66

수평 도약 종목 유망주 서예지(광양하이텍고)가 18세 미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예지는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탐방에서 열린 대회 여자 멀리뛰기 결선에서 5m66을 뛰어 3위를 차지했다.

5m66을 뛸 때 바람이 등 뒤에서 초속 3.8m로 불어 서예지의 기록은 '비공인 기록'으로 분류됐다. 멀리뛰기에서는 초속 2m를 초과하는 뒷바람이 불면 기록을 공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의 세기와 관계 없이 1~6차 시기 중 가장 멀리 뛴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서예지는 10명이 출전한 대회에서 6m26을 뛴 량모룡(중국), 5m77의 지 연아(싱가포

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를 병행하는 서예지는 고교 1학년이던 지난해에 여자 고등부 세단뛰기에서 8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국제대회에서는 멀리뛰기에서 시상대에 올랐다.

서예지는 "동메달을 획득해 기쁘고 영광스럽다. 차근차근 기록을 늘려 1위를 차지한 량모룡을 넘어보고 싶다"며 "김유미 코치님의 도움이 컸다. 코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남자 100m 결선에서 나선 전체민은 10초41로, 10초40에 달린 3위 쿠르크 핑(홍콩)에게 0.01초 차로 밀려 4위를 했다.

이 종목에서는 시미즈 소라토(일본)가 10초38로 우승했고, 다이홍위(중국)가 10초39로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민재 66분' 뮌헨, 챔스리그 4강 좌절

인터밀란에 합계 3-4 패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1차전 패배를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뮌헨은 1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린 인터 밀란(이탈리아)과의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지난 8일 홈 1차전에서 1-2로 패했던 뮌헨은 1, 2차전 합계 점수에서 3-4로 밀려 아쉽게 4강행 티켓을 인터 밀란에 내줘야만 했다.

이로써 2019-2020시즌 이후 5년 만이자 통산 7번째 우승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뮌헨은 지난 시즌에는 4강에서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겨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반면, 인터 밀란은 2009-2010시즌 이후 15년 만이자 통산 네 번째 우승 꿈을 키워가게 됐다.

김민재는 이날 에릭 다이어와 함께 포백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65분을 뛰고 뮌헨이 1-2로 끌려가던 후반 20분 하파엘 케세이루와 교체됐다.

전반 28분에는 수비 뒷공간으로 쇄도하는 상대 공격수 마르쿠스 튀랑을 막으려고 태클을 시도하다 경고받기도 했다. 1차전에서 패했던 터라 뮌헨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다 인터 밀란의 골

문을 좁혀뒀지 못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뮌헨은 후반 들어 7분 만에 해리 케인의 선제골로 합계 점수 2-2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뮌헨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13분 인터 밀란의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혼전 중 라우터로 마르티네스가 자기 앞에 떨어진 공을 오른발로 차 넣었다. 3분 뒤에는 허칸 찰하놀루의 코너킥을 뱅자맹 파바르가 머리로 받아 넣어 인터 밀란이 합산 점수에서 4-2로 달아났다.

뮌헨은 후반 20분 김민재와 레로이 자네를 빼고 케세이루와 세르주 그나브리를 투입해 총공세에 나섰다. 후반 31분 코너킥 기회에서 짧게 연결한 공을 그나브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띄워주자 골문 왼쪽 골라인 부근에 있던 다이어가 헤딩슛으로 연결해 합산 점수에서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이후 뮌헨이 즐기자게 인터 밀란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끝내 추가 골은 터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